

일본 재해대비 비상식량은 끝없이 진화 중

오사카지사

일본 재해대비 비상식량의 추천요건

- 큰 재해를 여러 차례 겪은 일본에서는 재해대비 비상식량 제품이 꾸준히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상식량의 요건도 잘 정리되어 있다.
- 재해대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비상식량의 요건은 평소에 좋아하는 식품, 맛이 강하지 않은 식품, 1인 1일 3리터의 물, 소용량·소포장 식품, 채소·과일 가공품이라고 NHK 라이프스타일은 전한다.
- 또한 비상식량을 준비할 때 3~7일 분량으로 보존성이 높고 보관과 섭취가 간편한 식품을 추천하고 있다.

최장 25년까지 보관되는 장기 보존 제품

- 일본 재해대비 식품제조업체들은 새로운 보존방식 개발을 거듭하며, 장기보존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 중이다.
- 카고메는 채소주스 캔에 들어가는 채소종류를 바꾸고, 뚜껑도 부식에 강한 소재로 만들어 보존기간을 5년 반으로 연장시켰다. 30가지 채소가 들어간 350g 용량의 이 제품의 슬로건은 ‘하루 한캔 야채! - 장기보존용’이다.
- 에자키구리코는 인기상품인 ‘비스코’를 5년 3개월까지 보존할 수 있는 캔용기 상품으로 만들어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중이다.

매스컴에서 추천하는 비상식량용 제품들



레토르트 죽제품



빵 통조림



즉석밥



반찬 통조림



과일 통조림



건조스프(된장국)



건조채소 및 과일



과자 통조림



젤리 음료



보존수 (물)

- 오차스케(녹차에 밥을 말아먹는 요리)로 잘 알려진 나가타니엔과 (주)엔터프라이즈가 손을 잡고 수분 98%를 없애는 동결건조 방식으로 25년간 보존이 가능한 비축식 크래커, 채소 스튜 등 '서바이벌 푸즈' 5종을 시중에 내놓았다. 비상식량 제품의 보존기간이 대개 3~5년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매스컴에서 추천하는 비상식량용 제품들



25년 보존 가능 크래커



25년 보존 가능 채소 스튜



지역특산물 활용
비상식량 통조림



닛신식품 판매
방재비축 4인 가족 세트



일본 인터넷 쇼핑몰 라쿠텐 판매
방재 상품 30점 세트

비상식량에도 맛과 건강 고려하는 시대

- 식품의 장기적 보존에 집중했던 비상식량들이 이제는 맛과 건강까지 고려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 '오가타무라 아키타코마치 생산자협회'는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원재료는 첨가하지 않은 카레 필라프, 채소 수프 등의 비상식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 협회에 따르면 비상식 1일 제조량은 7천식에 이르며 제품의 부속 발열제를 사용하면 가스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식량을 데울 수 있다고 한다. 카레로 유명한 하우스식품도 비슷한 제품을 판매 중이다.
-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기로 유명한 이시이식품은 별도의 그릇이 없어도 식사가 가능한 죽과 리조토를 비상식량으로 판매하고 있다.
- 보존료와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오이시이 비축식' 시리즈도 출시되고 있다. 레스토랑 요리에 뒤지지 않는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제품은 리조토, 빵, 비프 스튜 등 11종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중 아키타 현의 특산물로 유명한 소고기를 사용해 만든 비프 스튜가 가장 인기 있다.

장기보존 가능한 한국 식료품 개발해야

- 한국 식료품 가운데 레토르트 삼계탕, 죽제품, 통조림 밀반찬, 캠핑(군용) 비빔밥 등은 보존기간이 길고 열량이 높으며 건강기능성까지 갖추고 있어, 장기보존이 가능한 상품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하다. 적절한 상품과 비상식품 배낭증정 등의 프로모션까지 더해진다면 한국과 일본을 넘어 전세계적인 재해대비용 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